

'1조 증자' 순풍에 돛단 카뱅 자본조달 번번이 차질 케뱅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인터넷은행 3분기 실적 희비

카뱅 적자폭 줄고 흑자전환 가시화
순손실 3배 이상 차... 격차 벌어져

인터넷전문은행 1, 2호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실적 명암이 엇갈렸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3분기 순익분기점(BEP) 수준까지 적자폭을 줄이며 내년 흑자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어려움에 자산성장도 정체됐다.

4일 은행연합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지난 3분기 순손실이 각각 39억원, 1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카카오뱅크는 순손실 159억원, 케이뱅크는 순손실 580억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카카오뱅크의 총여신과 총수신은 각각 7조7887억원, 9조3587억원이다. 총자산은 10조7407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케이뱅크의 총여신과 총수신은 각각 1조1817억원, 1조7288억원이다. 총자산은 1조9810억원에 머물렀다.

벌어진 격차는 자본력에서 비롯됐다.

<인터넷전문은행 3분기 실적 현황>

구분	kakaobank	bank
순이익	-39	-185
누적 순이익	-159	-580
총여신	77,887	11,817
총수신	93,587	17,288
총자산	107,407	17,810
연체율	0.13%	0.64%

단위: 억원

/자료=은행연합회 경영공시

삼성증권 김재우 연구원은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고객 저변을 빠르게 넓히는 가운데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규모 확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며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반면 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케이뱅크는 완만한 성장 및 수익성 중심의 경영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두 차례의 유상증자로 1조원을 확보했다. 든든한 자본력에 카카오뱅크는 내년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김 연구원은 "인터넷은행의 BEP 달성을 위한 대출 규모를 10조원 내외로 추산한다"며 "현재 카카오뱅크의 자산규모 및 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연간 기준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반면 케이뱅크는 세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주주 구성이 파편화된 탓에 매년 당초 계획됐던 규모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상증자가 이뤄졌다. 케이뱅크 이사회는 지난 10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며, 주금 납입일은 오는 20일이지만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케이뱅크는 자본에 대한 부담으로 '대출 쿼터제'를 운영하면서 지난 몇 달간 대출 중단과 판매제계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인터넷은행 시장의 경쟁은 내년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인터넷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이달 중으로 내놓기로 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보유를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시행령이 이미 입법예고됐으며, 다음달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도 ICT 기업 자산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의 50%는 넘는 경우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다. /인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4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중앙청사에 모여 카드사 구조조정 방지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나유리 기자

'수수료 인하'에 카드노조 강력 반발 "乙들간의 합의 무시한 것 카드사, 구조조정 내몰려"

카드사 경쟁력 제고 확대 개선안 구조조정 방지방안 마련 등 촉구

카드노조가 내년 1월 말 카드사 구조조정 방지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카드산업 노동자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카드노조는 4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사 구조조정 방지방안 마련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대 삼성카드를 제외한 6개 카드노조(롯데, 비씨, 신한, 우리, KB국민, KEB하나) 간부 등 100명 가량이 모였다. 카드노조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 영세 중소기업과 함께 4가지를 합의하고 전달했지만 금융당국은 일방적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카드노조는 지난 11월 12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발표에 앞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단체를 찾아 목소리를 듣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카드노조는 금융위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만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금융위가 카드노조-자영업자의

"을들간의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어떤 해결책도 없이 카드사에 적자를 감수하라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금융위가 발표한다고 카드수수료가 인하하게 되면 내년 초 카드노동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안이 실현되면 카드사는 약 1조 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전년도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이 1조 2000억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모든 신용카드사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카드노조는 카드사 구조조정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3가지를 요구했다. ▲5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수수료 현실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에 노조 추천인사 참여 및 과도한 프로모션 제한 등 마케팅 관행 개선 ▲1월까지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확대 개선안 마련 등이다.

장경호 전국금융산업노조 우리카드지부 위원장은 "이미 카드사는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내년부터 1억4000억원의 손실이 예정돼 있다"며 "1월말 추가적으로 나올 방안에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과 마케팅비용 제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EB하나은행-신보 혁신 성장·일자리창출 협약

KEB하나은행은 4일 을지로 KEB하나은행 신사옥에서 신용보증기금과 '혁신성장 및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혁신성장 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KEB하나은행은 총 102억원(특별출연금 95억원, 보증료지원금 7억원)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며, 총 2868억원의 협약보증 대출을 지원한다. /김문호 기자 kmh@



4일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오른쪽)과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www.pdna.co.kr

사랑받는 피부 비밀은 DNA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함유
아데노신 함유

바다 송어의 물찬탄력, DNA 에너지를 담다

P+DNA

바다 송어의 DNA에너지를 담은 피디엔에이 크림&세럼

겨울에도 눈부신 봄 피부,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세요

*7가지 피부보호 성분 함유(크림) : sodium DNA 1000ppm, 아데노신, 베타글루칸, 아연, 나이아신, 차아씨추출물, 백년초열매추출물, 올리브오일 외

주름개선기능성

유수분밸런스개선

피부탄력개선

주요 언론에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세럼

KOTRA BUYERS GUIDE Pioneer 소개 (2018.8)
"Skin regenerating cosmetics"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MFDS 식약처 기능성 보고 완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070-4870-0708